

## 르네사스, 생산재개 1개월 소요

- 공장 화재로 자동차 추가감산, 반도체 공급 정상화에 3개월넘게 소요

2021/03/22 일본경제신문

반도체 대기업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는 21일 화재로 인한 생산정지 중인 那珂공장의 생산재개에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표명. 반도체는 공정이 많아 일반적으로 제조에 2~3개월이 소요되어 공급정상화까지는 3개월 넘게 소요된다는 계산. 미중 무역마찰과 수요급증으로 세계적으로 부족한 자동차용 반도체는 2월중순 미국의 한파로 현지공장이 정지되어 부족상황이 악화. 자동차 메이커의 추가 감산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음.

르네사스의 柴田英利 사장은 21일 회견에서 「1개월 이내에 생산재개가 되도록 전력을 하겠다」고 언급. 다만 「일본에서는 불투명감이 있다」고 하여 늦을 우려도 시사. 생산 정지가 「반도체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

화재는 19일 오전 2시 47분에 발생하여 약 5시간반 후에 진화되었음. 피해가 난 것은 첨단제품 양산을 담당하는 직경 300밀리미터의 생산 라인으로 주로 자동차의 주행을 제어하는 마이콘이라 불리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음.

르네사스는 약 20%의 점유율로 세계 2번째로 매출이 많음. 토요타 자동차와 닛산자동차 등에 공급하고 있음. 伊藤忠総研의 深尾三四郎 상석주임연구원은 「자동차산업은 반년정도 (반도체) 조달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르네사스에 의하면 「제공품을 포함 재고는 1개월밖에 없는」 상황. 반도체 상사의 담당자는 메이커와의 중개역인 대리점의 보유분을 포함해서 재고는 2~3개월분으로 「자동차메이커와 부품대기업에게는 거의 재고가 없는」 것으로 봄. 생산도중이었던 재고를 사용한 출하는 조기에 가능하지만 화재 전의 공급수준에는 3개월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임.

혼다는 「지금 바로 영향은 없지만 (정지가) 1개월정도 지속되면 재고가 부족하기 시작 4월 이후에는 생산에 영향이 미칠 것 같다」고 21일 코멘트. 「르네사스 제품 이외의 제품으로의 교체 등으로 공장을 중지하지 않도록 조정

해 나갈 것이다」고 함. 토요타는 생산차종의 변경이나 교체생산의 가능성 등도 검토, 생산에 대한 영향 대수를 정밀 분석함.

영국조사회사 옴디아의 南川明씨는 「국내 메이커를 중심으로 세계적 영향이 수만대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 르네사스는 자사공장과 외부에서의 대체생산을 검토하고 있지만 300밀리미터의 생산라인은 那珂공장밖에 없음. 소량다품종용의 200밀리미터의 생산라인에서 교체생산하려고 해도 그 라인도 화재로 정지된 旭化成의 반도체 공장 대체생산 등으로 가동률이 높아 구멍을 메우기가 어려움.

르네사스의 那珂工場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조업을 약 3개월 정지했음. 자동차생산이 타격을 받아 「르네사스 쇼크」라 불렸음. 금번은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한 가운데 정지가 되어 부족현상 확대가 우려되고 있음.

2월 미 남부 텍사스의 한파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 마이콘 점유율로 세계 수위인 네덜란드 NXP세미콘닥터즈와, 3위인 독일 인피니온테크놀로지스의 공장이 정지되었음. NPX는 3월 상순에 텍사스주 공장에서 약 1개월분의 생산을 잃었다고 발표. 인피니온은 생산이 원래의 수준으로의 회복은 6월이 될 것이라고 언급.

이런 반도체 부족 등으로 18~19일에는 닛산과 미국 포드모터, 토요타가 공장을 정지했음. 여기에 르네사스의 화재가 더해져 차량용 반도체 3강의 각각의 공장이 정지하는 사태가 일어나 부족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마이콘의 세계 점유율>

업 체 명	점유율(%)	업 체 명	점유율(%)
NXP세미콘닥터즈(네덜란드)	17.1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	17.0
인피니온테크놀로지(독일)	14.6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스위스)	14.4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미국)	12.7	기 타	24.2

(주) 2020년 매출기준. 자료는 영국 옴디아

## 르네사스, 자사생산으로 전환한 라인이 나쁜 결과

2021/03/22 일본경제신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는 화재로 정지중인 那珂工場の 재개를 위해 거래처와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의향을 표시. 관민 함께 생산재개를 서두르고 있지만 화재가 있었던 것은 원래 대만TSMC 등 외부로 위탁하고 있었던 반도체를 작년 가을 자사생산으로 교체한 중요 라인. 세계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는 TSMC로의 위탁분에 대해 납기 지연을 우려해서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자사로 교체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낳게 되었음.

21일 기자회견에서 柴田英利 사장은 「1개월 후 생산재개 목표는 원래의 생산규모로 회복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언급했음. 다만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한 가운데 재개에 필요한 장치와 부재의 조달도 어려워 Full 가동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음. 대체장치의 조달 등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도 장치메이커와 업계단체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음.

르네사스는 21일 회견에서 화재의 영향을 받은 생산품목의 2/3가 자동차용 반도체 였다는 점도 밝혔음. 나머지는 인프라용 등임. 那珂工場에는 현재, 자동차 메이커 등 거래처로부터 약 50명이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소손된 장치의 교환 등을 진행하고 있음.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공급자 책임을 묻지 않도록 진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영향은 적지 않을 것 같음.

화재로 건물 1층 클린룸 가운데 전체(1만2000평방미터)의 5%정도에 해당하는 약 600평방미터가 소손되었음. 제조장치는 11대가 소손. 배선 등에 사용되는 도장장치에서 과전류가 발생하여 설비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했음. 과전류의 원인과 발화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 중. 같은 모양의 클린룸이 2층에도 있어 영향은 없었지만 생산재개은 1층과 함께되게 됨.

柴田 사장은 회견에서 인근 주민, 거래관계자에 사죄를 했음. 금번 화재가 발생한 공장 건물의 매출은 월 170억엔 정도로 르네사스 전체의 30%정도에

해당. 실적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재공품 등의 파손 황을 금후 정밀 조사하기 때문에 「정보가 밝혀지는 대로 제공한다」고 언급.

2월에는 영국 반도체 대기업 다이아로그 반도체를 6000억엔 규모로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21일 회견에서 柴田 사장은 「매수 전략을 현시점에서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지만 공급이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의 생산정지로 인해 그 계획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